

위기에 흔들리지 않았던 류현진... “여전히 견고했다”

보스턴전 4 2/3 이닝 2탈삼진 무실점 ‘쾌투’
팀 1-0 앞선 5회 2사 등판 마감해 승 불발
“복귀, 가치 있다” “위기 탈출에 능숙하다”

승리를 거두진 못했지만, 또다시 베테랑의 품격을 과시했다. 류현진(36·토론토 블루제이스)이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을 뽐내며 무실점 투구를 완성했다. 류현진은 18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로저스센터에서 열린 2023 메이저리그(MLB)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4 2/3이닝 6피안타 2볼넷 2탈삼진 무실점 쾌투를 펼쳤다. 하지만 팀이 1-0으로 앞선 5회 2사에서 등판을 마감해 시즌 4승(3패) 달성이 불발됐다. 평균자책점은 종전 2.93에서 2.62로 낮췄다. 지난 4경기에서 홈런 5방을 허용했던 류현

진은 이날 실점 없이 경기를 마무리했다. 올해 류현진이 점수를 내주지 않은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실점 고비에서 발휘한 류현진의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이 돋보였다. 류현진은 2회 라파엘 디버스에 내야 안타, 애덤 듀발에 2루타를 맞아 무사 2, 3루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파블로 레예스를 유격수 땅볼로 유도해 3루 주자 디버스를 홈에서 잡았고, 트레버 스토리와 바비 달백을 모두 외야 뜬공으로 돌려세우면서 고비를 넘겼다. 류현진은 3회에도 마크 맥과이어에 안타를 맞고, 세단 라파엘라에 2루타를 허용해 재차

무사 2, 3루 위기에 처했다. 이후 롭 레프스나 이더를 좌익수 뜬공으로 처리한 뒤 저스틴 터너를 3루수 땅볼로 묶었다. 이어 디버스를 볼넷으로 내보냈으나 듀발을 유격수 뜬공으로 봉쇄하며 순항을 이어갔다. MLB닷컴의 토론토 담당 기자 키건 매더슨은 개인 SNS에 “류현진은 약간의 출루를 허용했고, 수비의 도움을 받았다. 그래도 그는 여전히 견고했다”며 “(알렉) 마노아의 상황과 토론토의 제한적인 선발 로테이션 뎀스를 고려하면 류현진의 복귀는 매우 가치 있다”며 찬사를 보냈다. 캐나다 매체 토론토 스타는 “류현진은 위기 탈출에 능숙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류현진은 2회와 3회 무사 2, 3루 위기가 있었지만, 두 차례 모두 아웃카운트 3개를 기록했다”며 호평을 전했다. 야후 스포츠 캐나다의 토마스 홀 또한 자신의 SNS에 “류현진은 첫 3이닝에서 위기 탈출 아티스트임을 증명했다”고 치켜세웠다. 뉴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이 17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의 로저스 센터에서 열린 2023 메이저리그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경기 1회 투구하고 있다. 류현진은 4 2/3이닝 6피안타 2볼넷 2탈삼진 무실점 투구 중 1-0으로 앞선 5회 초 교체됐고 팀은 3-2로 승리했다.



최경주, PGA 챔피언스투어 샌퍼드 인터내셔널 준우승...올해 최고 성적

최경주가 미국프로골프(PGA) 챔피언스투어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최경주는 18일(한국시간)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스포츠의 미네하하 컨트리클럽(파70·6729야드)에서 열린 PGA 챔피언스투어 샌퍼드 인터내셔널(총상금 200만 달러) 최종 3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1개를 묶어 5언더파 65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15언더파 195타를 적어낸 최경주는 1위 스티브 스트리커(미국·16언더파 194타)에 1타 차 뒤진 2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이는 올 시즌 최고 성적이다. 최경주는 50세 이상 선수들이 경쟁하는 챔

피언스투어에 2020년 입문해 우승 1회, 준우승 4회의 성과를 냈다. 지난 2021년 9월 퓨어인슈어런스 챔피언십에서 한 차례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최경주는 16번 홀(파5) 버디로 스트리커와 공동 선두에 이름을 올렸으나 뒷 조에서 경기에 나선 스트리커가 16번 홀에서 1타를 줄여 다시 2위로 밀려났다. 최경주는 18번 홀(파4)에서 보기에 그쳐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스트리커는 올 시즌 챔피언스투어 6승째를 거뒀고 통산 17승을 달성했다. 최경주와 함께 출전한 양용은은 최종합계 7언더파 203타로 공동 18위에 자리했다.

PGA 김성현 “최경주 프로와 같은 날 준우승 기쁘다”

김성현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가을 시리즈’ 첫 경기인 포티넷 챔피언십(총상금 840만 달러)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후 다음 경기에서도 선전을 다졌다. 김성현은 18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니파의 실버라도 리조트 앤 스카노스 코스(파72)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버디만 4개를 잡아 4언더파 68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19언더파 269타를 친 김성현은 단독 2위에 올랐다. PGA 투어 진출 후 가장 좋은 성적을 냈다. 지난해 10월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 공동 4위에 올랐던 김성현은 이번 시즌 두 번째로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김성현은 “내가 이때까지 경기를 하면서 가장 긴 주였던 것 같다. 스스로 정신력으로 버티려고 했고, 좋은 생각, 좋은 마인드로 경기에 임하려고 했다. 끝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플레이한 것 같고 결과도 만족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주를 잘 마무리했듯 남은 경기들도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열심히 준비해서 또 좋은 플레이를 하겠다”고 말했다. 저스틴 토머스(미국)와 같은 세계적인 선수들과 플레이 한 소감에 대해 “어제 토머스와 패어링(한 팀) 된 걸 보고 설레고 긴장도 많이 됐다. 막상 첫 홀, 두 번째 홀 치고 나름대로 페



이스를 찾아가면서 긴장이 풀렸고, 저스틴이 ‘굿샷’도 많이 해줬다. 정말 좋은 선수인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월드 톨클래스는 다르다는 걸 느꼈다”고 이야기했다. 이날 샌퍼드 인터내셔널에서 준우승한 대신 배 최경주에게도 축하 인사를 건넸다. 김성현은 “같은 날에 준우승 하게 돼서 기분 좋다. 너무 축하드린다. 항상 존경하는 최 프로님인데 챔피언스투어에서도 항상 열심히 하시고 좋은 성적을 내는 모습 보면서 나도 그렇게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다짐했다. 이번 경기에서 사히스 시갈라(미국)는 최종합계 21언더파 267타를 기록해 생애 첫 PGA 우승을 차지했다.

‘스마일 점퍼’ 이상혁, 세계 무대 점수 후 아시안게임으로



세계 무대를 제패한 ‘스마일 점퍼’ 이상혁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이상혁은 19일(한국시간) 귀국한 뒤 인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높이뛰기 우승을 위한 마무리 훈련에 돌입한다. 그는 지난 17일 미국 오리건주 유진 헤이워드 필드에서 열린 ‘2023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남자 높이뛰기 경기에서 개인 실외 최고 기록인 2m35를 넘으며 우승했다.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한국 최초 우승
2018 AG서 은메달...21년 만에 금 사냥
“항저우 AG에서도 우승 최선 다할 것”

최초로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에 오른 것뿐 아니라 한국 선수 처음으로 입상, 더 나아가 금메달까지 거머쥐며 국내 육상의 역사를 새로 쓴 것이다. 이날 우승으로 이상혁은 파리행도 확정했다. 2024 파리 올림픽 높이뛰기 기준 기록은 2m33이다. 지난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의 기록을 인정해, 이상혁은 올림픽에 나갈 수 있게 됐다. 이제 이상혁의 시선은 또 다른 금메달이 기다리고 있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향한다.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을 마친 뒤 곧장 귀국해 인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마무리 훈련에 돌입한다. 높이뛰기는 내달 4일 오후 결선 경기가 열린다. 지난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2m35의 한국 기록을 작성하며 육상 트랙·필드 사상 최고 성적인 4위를 기록했던 그는 이번 다이아몬드리그까지 꾸준함을 자랑했다. 아시안게임에서도 강했다. 직전 대회였던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는 2m28을 넘어 은메달을 수확한 바 있다. 이제는 금메

달에 도전한다. 이상혁은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2주 남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며 또 한 번의 금빛 사냥을 예고했다. 대한체육회도 큰 기대를 보내고 있다. 지난달 아시안게임 D-30 미디어데이 당시 대한체육회는 유망 종목과 주요 선수를 공개하면서 김우진, 김제덕, 안산(양궁 남녀 리커브), 안세영(배드민턴), 황선우(수영) 그리고 이상혁을 꼽은 바 있다. 금메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라이벌인 무타스 에사 바르심(카타르)을 꺾는 것이 관건이다. 바르심은 이번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에 불참했다. 불참 이유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부상 때문에 대회 수를 조절하고 있어 이번 아시안게임에 집중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세계 무대를 접수한 이상혁이 바르심까지 넘는다면, 2002 부산 대회에서 금메달을 걸었던 이진택 이후 21년 만에 아시안게임 남자 높이뛰기에서 금메달리스트가 탄생하게 된다. 대한육상연맹에 따르면 본진과 달리 육상은 종목별 경기일정에 따라 출국이 다른 상황, 이상혁은 27일 항저우로 이동할 예정이다.

지소연 “8강 일본전 결과 따라 AG 메달 색 달라질 것”

조 1위 올라가면 토너먼트서 8강만
“일본 강한팀이지만 부담 되지 않아”

한국 여자 축구 사상 가장 뛰어난 선수로 평가받는 지소연(수원FC위민)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빛 사냥의 분수령으로 일본전을 꼽았다. 지소연은 18일 오전 파주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축구대표팀 마지막 오전 훈련을 한 뒤 취재진과 만나 “대회 한 경기 한 경기 집중해나갈 것”이라며 각오를 전했다. 풀린 벨 감독이 이끄는 여자대표팀은 오는 22일 미얀마(원저우스포츠센터), 25일 필리핀(원저우스포츠센터), 28일 홍콩(원저우올림픽경기장) 등과 E조에서 조별리그를 치른다. 이번 아시안게임 여자 축구는 17개 팀이 5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1위 5팀과 2위 중 상위 3팀까지 총 8팀이 토너먼트를 치르는데, 한국이 1위로 올라가면 8강에서 일본을 만나게 된다. 조 2위로 올라가서 일본을 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소연은 우승을 위해서는 굳이 피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은 저번이 좋아서 해외파가 빠져도 약한 팀이 아니다. 자국 리그 선수들만 구성해도 전력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조 1위로 올라가면 일본을 만나게 될 텐데 부담스럽



한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 에이스 지소연이 18일 파주NFC에서 진행된 훈련 후 기자회견을 통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각오를 전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지는 않다. 우리가 우리 것을 못하는 것에 대해 그게 더 부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 2010 광저우 대회부터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까지 3회 연속 동메달을 땀다. 지소연은 “나 또한 (메달) 색깔에 대해 굉장히 간절하다. 아마도 예선전을 만약에 통과하게 되면 우리가 일본을 만날 것”이라며 “일본

을 우리가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메달 색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한다”며 우승을 위해 일본을 반드시 잡겠다고 밝혔다.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지난 7-8월 끝난 국제축구연맹(FIFA) 호주·뉴질랜드 여자월드컵에서 1무2패(승점 1)를 기록하며 H조 최하위에 머물렀던 부진을 털어낼 계기가 될 거라는 점도 짚었다.